

국제 학술지 발간 개선을 위한 자매학술지의 분석 연구*

An Analysis of Sister Journal Characteristics for Enhancing the Publication of International Journals

오 동 근(Dong-Gen Oh)** · Kiduk Yang***

여 지 숙(Ji-Suk Yeo)**** · 박 상 후(Sang-Hoo Park)*****

< 목 차 >

I. 서론	1. WoS 및 Scopus 등재요건 충족 여부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특성분석
2. 선행연구	3. 인용분석
II. 연구방법 및 내용	IV. 결론 및 제언
III. 자매학술지의 특성분석	

초 록

이 연구는 2015년에 WoS와 Scopus의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동시에 등재된 학술지 2종과 그 자매지들, 그리고 국내 발간 국제학술지로 SCIE와 Scopus에 동시에 등재된 해양학 학술지 1종과 그 자매지 1종(Scopus 등재)의 2014년 및 2015년에 게재된 논문들과 이 논문들을 2016년에 인용한 논문들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WoS에 등재된 학술지와 이들 학술지의 자매지이지만 WoS에 등재되지 않은 학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WoS에 등재된 학술지의 특징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로 WoS의 등재지의 특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간행을 더 자주 하며, 논문위주로 발행하고, 다양한 국가의 저자에게 두고 받으며, 게재논문들이 더 많이 인용되는 것을 보면 논문의 품질이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등재학술지가 비등재 자매지보다 공동연구의 논문을 게재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에서는 그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단독연구의 비율이 더 높은 국내발행 학술지가 국제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고자 할 때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국제학술지, 학술지 국제화, 자매지, WoS, 공동연구

ABSTRACT

The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wo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s indexed by Web of Science (WoS) and Scopus in 2015 along with two of their non-indexed sister journals. The study also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a SCIE- and Scopus-indexed oceanographic journal published domestically along with its sister journal indexed by Scopus only. In addition, the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the articles published during 2014 and 2015 in these 6 journals as well as the citations they received in 2016. By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and publication data of indexed journals and their sister journals, the study aimed to identify the properties of WoS-indexed journals that may be helpful in enhancing international journal publication.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of data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WoS-indexed journals publish more frequently, focus mainly on articles, are authored by researchers from many countries, and have higher quality papers that receive more citations than their non-WoS-indexed sister journals. The study also found higher rates of co-authored papers in WoS indexed journals, which were amplified in LIS journals. This is an important factor to consider for Korean LIS journals that are dominated by single-author articles when they prepare to be indexed in WoS.

Keywords: International journal, Internationalization of journal, Sister journal, WoS, Research collaboration

* 이 논문은 2018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위탁연구과제(JISTaP)의 국제적 투고와 홍보 증대를 위한 연구: 연구책임자 오동근)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odroot@kmu.ac.kr) (제1저자)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kiyang@knu.ac.kr) (교신저자)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wuhaha@chol.com)

***** 계명대학교 사서교육원 강사(lis98@hanmail.net)

•논문접수: 2018년 8월 19일 •최초심사: 2018년 8월 27일 •게재확정: 2018년 9월 17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3), 219-240, 2018. [http://dx.doi.org/10.16981/kliss.49.201809.219]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학술지를 발간하는 기관으로는 출판사, 학회, 기관 등이 있으며, 이 중 전문 출판사의 경우 국제적으로 전세계에서 발간되는 다수의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나 기관 등 전문 출판사가 아닌 경우에도 하나 이상의 학술지를 동시에 발간하고, 이 중 국제적인 색인지에 등재된 학술지를 보유하는 기관도 있다.

학술지를 이용하는 가장 편리하고 유용한 방법 중 하나가 국제색인지에 등재된 학술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대체로 색인지에 등재됨과 동시에 온라인상에서 검색은 물론 원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연구자들의 연구성과 평가 방법으로 국제적인 색인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것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학술지에 대한 이용 및 관심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인 색인지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Clarivate Analytics의 Web of Science(WoS)와 Elsevier의 Scopus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 연구자의 성과를 평가할 때 국제적으로 발표된 성과의 경우 이 두 색인지에 등재된 학술지에 발표한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색인지의 발행 기관 및 등재학술지는 서구 영어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지역을 제외한 지역 및 비영어권 연구자의 경우 연구성과를 등재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이 서구 영어권 연구자들과 비교해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국내에서 발간되는 학술지를 국제적인 색인지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들로 이어진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학술지의 발간과 관련한 정보는 대부분의 발간 기관에서 외부로 밝히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국제적인 학술지로의 발전에 관한 다각적인 분석들을 통해 관련된 정보들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맥락의 일환으로, 동일한 기관에서 발간하는 두 학술지, 즉 자매지¹⁾의 특성을 분석하여 국제적인 색인지에 등재된 학술지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선정한 자매지는 국제적인 학술지를 발간하는 하나의 기관이 동시에 발행하는 학술지들로, 이 학술지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제적인 색인지에 등재된 학술지의 특징을 분석할 때 발행기관에 따른 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분석대상 학술지는 WoS에 등재된 학술지와 WoS에 등재되지 않은 자매지로,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2쌍, 해양학 분야 학술지 1쌍으로 총 6종의 학술지이다. 이 연구는 자매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WoS 등재지의 특성을 파악하여 국내발간 학술지의 WoS 등재에 도움을 주

1) 자매지(姊妹誌, sister journals): 한 기관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잡지와 자매 관계에 있는 잡지(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8)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내발간 국제학술지인 해양학 분야의 학술지를 선정하여 국내발간 학술지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대학에서 연구업적 평가에서 보면 WoS가 Scopus에 비해 평균 2.5배 정도의 평가점수를 주고 있으며(이혜경, 양기덕 2017), Scopus와 WoS를 비교한 선행연구들에서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의 논문의 질이 WoS에 등재된 학술지의 논문의 질(피인용수)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hadegani et al. 2013). 따라서 이 연구는 분석대상 학술지로 국내에서 발간되는 WoS의 등재학술지인 OSJ와 Scopus 등재지 이지만 WoS 비등재 자매지인 OPR를 선정하였다. 발행기관을 학회 및 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학술지를 발간하는 전문 출판사와는 달리 하나의 기관에서 동시에 발간하므로 분야와 발간과 관련한 환경이 비슷하므로, 이와 관련한 특성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연구자들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제적인 색인지에 등재된 학술지에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것을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제 색인지에 등재된 학술지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연구는 국제적인 색인지에 등재된 학술지의 특성을 자매지와와의 비교를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하는 시도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학술지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연구들은 대체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에 대한 연구와 인용분석 활용한 연구, 인용분석을 통해 학술지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 연구자들의 인용행태에 대해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뿐만 아니라, 건축공학(변경화 외 2014), 경영학(김대영(2014) 등 다수), 국어국문학(하선혜, 서현아 2013), 광고학(강경수 2009), 교육학(김유경, 방정숙(2017) 등 다수), 심리학(이예다나 외(2015) 등 다수), 사회복지학(이성용, 김진호(2017) 등 다수), 음악(장승희, 김영연 2017), 철학(전미영 2006), 종교학(박종석 2014), 체육학(차성기 2007), 지리학(이승훈(2016) 등 다수), 행정학(이승철(2013) 등 다수), 경찰학(이승주, 김도우(2016) 등 다수), 비서학(문주영 2014), 통계학(전희주 2015) 등 다수의 학문분야에서 고루 연구되었다.

그리고 인용분석을 통해 학술지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이견남, 김영은(2012)은 실과교육분야의 대표학술지들의 게재논문 및 인용분석 등을 통하여 대표학술지인 『실과교육연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한종엽, 권성국(2008)은 해양과학기술분야의 전문학술지의 수록논문 조사와 참고문헌에 대한 예비적인 인용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해양학 전문 학술지인 *Ocean Science Journal(OSJ)*의 국제적 수준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수립과 목표달성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윤석경(2007)은 행정학 분야 8개 학술지를 대상으로 논문의 특성, 인용

의 특성, 지식이전속도, 학술지영향력 지표 값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국제 색인지에 등재된 학술지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로는 이춘실(1997)이 한국의 의학논문이 게재된 SCI 등재학술지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 학술지의 국내 도서관 소장 유무 파악 및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춘실(1999)은 국제색인·초록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한국 학술지의 특성을 주제별, 데이터베이스별로 분석하여 그 특성을 도출하였다. 신은자, 최희운, 서태설(2015)은 국제학술지의 특성을 정리하고, DOI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학술지 143종에 대해 학술지의 영향력 지수와 편집진의 국제성, 글로벌 유통(오픈엑세스 실행 및 디렉토리 등재 여부, 학술지 웹사이트 색인 및 링크 게시 현황 등) 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의 영향력지수는 증가세이지만 아직 우수한 수준은 아니고, 편집위원회의 외국인 비중이 낮은 학술지도 적지 않았으며, 온라인투고시스템이 없는 학술지도 있으며, 영문웹사이트를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어, 향후 국내학술지가 국제학술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성 요소를 적극 보완하고, 글로벌 유통을 포함한 가시성 향상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송하나(2016)는 아동학회지의 국제화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아동학회지의 질적 우수성으로 연구의 타당성과 체계적 논문구성을 들었으며, 참고문헌의 최신성 부족 및 참고문헌에서 학위논문의 높은 비율이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술지 및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논문의 참고문헌 등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는 연구자의 연구성과의 발표 및 연구수행을 위한 이용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학문분야의 연구 동향 및 구조 분석, 연구자의 인용행태, 네트워크 등 연구 자체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문분야 및 연구자들의 연구행태 등을 파악하여 학문분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활동의 현황 진단 및 문제점 파악, 발전방향의 제시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학술지 자체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다른 연구에 비해 적게 수행되고 있으며, 특히 자매지와 관련한 연구는 아직 수행된 적이 없다. 그러나 자매지는 증가하는 학술정보의 발표 및 유통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자매지를 발간한 주요 사례로 *Nature*가 있다. *Nature*는 *Nature* 외에도 수많은 자매지(예: *Nature Biotechnology*, *Nature Cell Biology* 등)가 있으며 이들 자매지들이 각 분야의 IF(Impact Factor)의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2010년 4월에 발간되어 2016년 1월부터 온라인 오픈엑세스학술지로만 발간되는, *Nature*의 자매지인 *Nature Communications*가 있다. *Nature Communications*는 DOAJ, MEDLINE, WoS, Scopus에 등재되어 있으며, 2017년 현재 2년간 IF는 12.353이다(Nature Communications Home Page 2018). *Nature Communications*는 *Nature*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수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에 이미 모든 *Nature*의 논문수 보다 더 많은 논문을 출판하였다(印格致 2014). 연구자의 수 및 그들의 연구성과의 증가와 이들의 국제적인 입지가 확립된 학술지에 대한 선호로 인해, 앞으로 이러한 자매지에 대한 관심이 현재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학

술지 중 국제색인지에 등재된 학술지는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국제적인 학술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국제적인 학술지를 발간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국제적인 색인지에 등재된 학술지의 특성을 자매지와의 비교를 통해 도출해 보는 시도적 연구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국제적인 색인지에 이미 등재된 국내 발행 국제 학술지들이 다수 출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국제적인 색인지에 등재된 학술지를 발간하는 경험을 가진 기관들과 자체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하는 기관들에게 학술지의 특성을 파악하여 국제색인지에 등재될 수 있는 학술지를 발간하는데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대상 학술지는 2015년에 SSCI와 Scopus의 문헌정보학 분야에 동시에 등재된 학술지 (*College & Research Libraries(C&RL)*, *Library Journal(LJ)*)와 그 학술지의 자매지 (*RBM(A Journal of Rare Books, Manuscripts, and Cultural Heritage)*, *School Library Journal(SLJ)*)를 대상으로 하였다. *Malaysian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MJLIS)*도 2015년에 SSCI와 Scopus의 문헌정보학 분야에 동시에 등재되었으나, 자매지인 *Kekal Abadi*의 조사당시 원문을 학술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어서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대상 학술지 중에서 *SLJ*는 기관지로서의 특성이 강하여 전문학술지를 대상으로 하는 이 연구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LJ* 또한 *SLJ*와 동일하게 기관지로서의 특성이 강하며 두 학술지가 게재 논문의 유형, 홈페이지의 특성, WoS 등재심사요건 등에서 매우 유사하여(<표 4> 및 <표 5> 참조), 연구대상 학술지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국내 기관에서 발간하는 자매지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 기관 발행 학술지인 *Ocean Science Journal(OSJ)*과 그 자매지인 *Ocean and Polar Research(OPR)*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OSJ*와 *OPR*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동시에 발간하는 해양학 분야 학술지로, *OSJ*는 SCIE와 Scopus에 동시에 등재되어 있으며, *OPR*은 Scopus에 등재되어 있다. WoS 등재지인 *OSJ*의 자매지인 *OPR*은 Scopus 등재지이지만 국내발행 학술지이고, WoS 비등재지로 국내발간 학술지의 WoS 등재를 위한 요소를 파악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학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 1>과 같다.

이 연구는 2014년 및 2015년에 게재된 논문들과 이 논문들을 2016년에 인용한 논문들을 조사하였다. 조사방법 및 기준일자는 <표 2>와 같다. *LJ* 및 *SLJ*의 경우 학술지홈페이지에 권호별로 원문이 일부만 링크되어 있어서, 학술지 홈페이지와 더불어 WoS와 ProQuest

Central Korea를 함께 참조하여 검색하였다.

〈표 1〉 연구대상 학술지

발행기관	학술지명	ISSN	발행국가	간기	2015		색인
					순위	IF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C&RL	0010-0870	USA	6 issues /year	23/86	1.568	SSCI Scopus
	RBM	0884-450X	USA	2 issues /year	.	.	.
MSI (Media Source Inc.)	LJ	0360-0277	USA	21 issues /year	67/86	0.411	SSCI Scopus
	SLJ	0362-8930	USA	12 issues /year	.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학회	OSJ	1738-5261	South Korea	4 issues /year	94/104	0.500	SCIE Scopus
	OPR	1598-141X	South Korea	4 issues /year	.	0.07*	Scopus

*Scopus의 CiteScore

〈표 2〉 조사방법 및 기준일자

학술지명	게재논문 정보원	피인용논문 조사 정보원 (기준일자)
C&RL	학술지 홈페이지	WoS (2017.07.16.)
RBM	학술지 홈페이지	Google (2017.07.19.)
LJ	학술지 홈페이지 & WoS	WoS (2017.07.19.)
SLJ	ProQuest Central Korea & 학술지 홈페이지	Google (2017.08.11.)
OSJ	학술지 홈페이지	WoS (2017.07.20.)
OPR	학술지 홈페이지	Scopus (2017.07.18.)

이 연구는 먼저 국제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학술지와 그 자매지에 대해 국제색인 데이터베이스의 등재기준에의 적합여부를 분석해 보고, 게재 논문 및 저자, 인용 분석 등을 통해서 각 학술지의 발간 및 이용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자매학술지의 특성분석

1. WoS 및 Scopus 등재요건 충족 여부

대표적인 국제색인 데이터베이스인 WoS와 Scopus는 학술지를 색인지에 등재하기 전에 심사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두 색인 데이터베이스는 최소심사요건과 이 요건을 갖춘 학술지에 대한 심사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최소심사요건은 심사신청을 할 학술지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며, 이 요건에 부합하는 학술지들이 심사대상이 된다. WoS(Clarivate Analytics Home Page 2018)와 Scopus(Elsevier Home Page 2018)의 학술지 심사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WoS 및 Scopus의 학술지 심사요소

	WoS	Scopus
최소 심사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심사(peer-review) • ISSN International Centre에 등록된 ISSN • 영문 서지정보 및 참고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에 의한 심사 및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심사절차에 대한 기술 • 정기적인 발행 및 ISSN 국제센터에 등록된 ISSN • 국제적인 독자에게 적합하고 읽을 수 있는 내용, 로마자로 된 참고문헌 및 영문초록/타이틀 • 출판윤리 및 위반사항에 대한 규정
학술지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시발행 - 국제적인 편집 관례 - 영문 발행 또는 영문 서지정보 - 동료 심사 • 편집내용 • 국제적 다양성 • 인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득력 있는 편집 정책 - 동료심사 - 편집자의 다양한 지리적 분포 - 저자의 다양한 지리적 분포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분야의 학문 기여도 - 초록의 명료성 - 학술지의 명시된 목적과 범위에 대한 품질 및 일치도 - 논문의 가독성 • 학술지평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opus에 있는 학술지 논문의 인용 - 편집자의 평판 • 정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연 또는 중단 없는 정시출판 • 온라인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학술지의 온라인 이용 - 이용 가능한 영문 홈페이지 - 학술지 홈페이지의 품질

WoS와 Scopus의 학술지 심사요건 중 심층적인 질적 분석이 필요한 요건들 이외에 학술지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이 가능한 요소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동료심사의 경우 *C&RL*, *OSJ*, *OPR*은 학술지 홈페이지 상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으나, *LJ*와 *SLJ*는 주제 전문가(specialist)가 아니라 일반전문가(generalist)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 그리고 윤리규정의 경우에도 홈페이지 상에서 별도로 명시된 경우는 *OSJ*와 *OPR*이었고, *C&RL*과 *RBM*, *LJ*, *SLJ*는 투고규정에 한 두 문장으로만 표기되어 있다. *LJ*와 *SLJ*의 경우 소수의 특집기사와 다수의 각종 자료의 리뷰기사로 구성되어 있어, 동료심사나 참고문헌 등에 대한 규정 및 기제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4> 각 학술지의 WoS 및 Scopus의 학술지 심사요건 충족 여부

내용 \ 학술지명	C&RL	RBM	LJ	SLJ	OSJ	OPR
동료심사	O	-	△	△	O	O
영문 서지정보&참고문헌	O	O	-	-	O	O
학술지 편집 정책	O	O	O	O	O	O
윤리규정	△	△	△	△	O	O
학술지 목적과 범위 명시	O	O	O	O	O	O
영문 홈페이지	O	O	O	O	O	O

2. 특성분석

가. 게재논문수 및 유형

이 절에서는 분석대상 학술지에 대해 2014년과 2015년 2년간의 기간 동안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수를 유형별로 조사하였다. 분석대상 학술지 중 *LJ*와 *SLJ*의 경우 기관지적인 성격이 강하며, 특히 도서 및 이북(ebooks), 오디오북(audiobooks), 비디오 및 DVD, 데이터베이스 및 웹사이트에 대한 리뷰를 학술지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어 이와 관련한 기사가 많았다(Library Journal Home Page 2018; School Library Journal Home Page 2018). 이 두 학술지를 제외한 학술지들은 학술적인 성격들이 강하여 주로 논문을 가장 많이 게재하였다. 연구 대상 학술지들의 2014년과 2015년의 게재논문수 및 유형은 <표 5>와 같다.

<표 5> 학술지별 2014-2015년(2년간) 게재논문 유형별 수

학술지명	발행호수*	게재 논문 수							
		Article			Review	Editorial	etc.	전 체	호(No) 평균
		총수	호(No) 평균	Article/총논문수					
C&RL	13**	98	7.5	70.5	30	10	1	139	10.7
RBM	4	20	5.0	47.6	13	4	5	42	10.5
LJ	42	141	3.6	1.4	8,856	411	473 [‡]	9,881	235.3
SLJ	24	53**	2.2	8.3	322	24	236 [‡]	635	26.5
OSJ	8	96	12.0	87.2	5	3	6	110	13.8
OPR	8	59	7.4	88.1	-	1	7	67	7.4

* 부록 포함

** Feature(ProQuest에서 표지를 채택한 것임)

*** 2015년에는 7호까지 발행

‡ News, Letter, 인터뷰 등

WoS의 등재지들은 비등재지인 자매지에 비해 발행호수와 호당 논문수가 많았지만 논문유형에서 비등재지의 학술논문 비율이 더 높은 경우가 있어(OPR은 예외), 논문의 유형보다는

발행빈도와 호당 게재논문수가 WoS의 등재를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WoS는 전자적인 형태로만 발간되는 학술지의 경우, 연간 최소 20개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양호한 (healthy influx)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Clarivate Analytics Home Page 2018).

나. 저자의 국가별 분포

2014년과 2015년 2년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를 소속기관의 국가로 분석한 결과, 학술지를 발간하는 기관이 속해 있는 국가의 저자가 모든 학술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WoS에 등재지에서 더 다양한 국가의 저자들이 논문을 게재하였다. 분석대상 학술지 중에서 OSJ가 학술지를 발간하는 기관이 속해 있는 국가의 저자의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68.3%), 이 외에도 20개국의 저자가 포함되어 있어 가장 다양한 국가의 저자가 논문을 게재하였다. 2014년 및 2015년에 해당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저자들의 국가별 분포는 <표 6>과 같다.

<표 6> 저자의 국가별 분포

학술지	국가	발행연도	2014		2015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C&RL	USA		97	89.0	131	87.9	228	88.4
	Canada		9	8.3	14	9.4	23	8.9
	기타(5개국)		3	2.7	4	2.7	7	2.8
	합계		109	100.0	149	100.0	258	100.0
RBM	USA		18	85.7	22	95.7	40	90.9
	Canada		2	9.5	1	4.3	3	6.8
	기타(1개국)		1	4.8	-	-	1	2.3
	합계		21	100.0	23	100.0	44	100.0
LJ	USA		3,357	71.4	3,572	66.4	6,929	68.7
	Canada		74	1.6	106	2.0	180	1.8
	기타(14개국+미상)		1,272	26.96	1,698	31.62	2,970	29.41
	합계		4,703	100.0	5,376	100.0	10,079	100.0
SLJ	USA		235	87.0	221	74.2	456	80.3
	Canada		-	-	1	0.3	1	0.2
	기타(미상)		35	13.0	76	25.5	111	19.5
	합계		270	100.0	298	100.0	568	100.0
OSJ	Korea		166	93.8	176	54.3	342	68.3
	Japan		-	-	30	9.3	30	6.0
	Malaysia		-	-	24	7.4	24	4.8
	Thailand		-	-	18	5.6	18	3.6
	China		1	0.6	14	4.3	15	3.0
	기타(16개국)		10	5.7	62	19	72	14.4
	합계		177	100.0	324	100.0	501	100.0
OPR	Korea		132	99.2	108	96.4	240	98.0
	Russia		1	0.8	3	2.7	4	1.6
	기타(1개국)		-	-	1	0.9	1	0.4
	합계		133	100.0	112	100.0	245	100.0

다. 편집진

연구 대상 학술지의 편집진의 인원은 *SLJ*가 12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OSJ*가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편집진의 인원을 살펴보면, WoS 등재 학술지의 편집진이 비등재 학술지의 편집진보다 인원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학술지별로 편집진의 수는 <표 7>과 같다.

<표 7> 학술지별 편집진 수

학술지명 직위	C&RL	RBM	LJ	SLJ	OSJ	OPR
Editor	13	13	7	4	34	25
Review Editor	1	-	12	8	-	-
etc	5*	5**	-	-	2***	1****
합계	19	18	19	12	36	26

* Social Media Editor, Ex Officio
 ** Ex Officio
 *** Technical Editor, Editorial Secretary
 **** Editorial Secretary

학술지의 편집진을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OSJ*가 한국 편집위원이 20명(58.8%)로 가장 많았지만, 한국 외에도 8개국의 다양한 국가에 소속된 편집위원들을 편집진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이 외에 나머지 학술지들은 학술지 발행기관이 속한 국가의 편집진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었다. 학술지별 편집진 소속기관의 국가별 현황은 <표 8>과 같다.

<표 8> 학술지별 편집진 국가 현황*(2018. 7. 5.)

학술지명 국가명	C&RL		RBM		LJ		SLJ		OSJ		OPR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Australia	-	-	-	-	-	-	-	-	1	2.9	-	-
China	-	-	-	-	-	-	-	-	1	2.9	-	-
Canada	-	-	1	5.6	-	-	-	-	-	-	-	-
France	-	-	-	-	-	-	-	-	1	2.9	-	-
Hong Kong	-	-	-	-	-	-	-	-	1	2.9	-	-
Japan	-	-	-	-	-	-	-	-	4	11.8	-	-
Korea	-	-	-	-	-	-	-	-	20	58.8	25	100.0
Taiwan	-	-	-	-	-	-	-	-	1	2.9	-	-
UK	-	-	-	-	-	-	-	-	2	5.9	-	-
USA	19	100.0	17	94.4	18	94.7	10	83.3	3	8.8	-	-
unknown	-	-	-	-	1	5.3	2	16.7	-	-	-	-
합계	19	100.0	18	100.0	19	100.0	12	100.0	34	100.0	25	100.0

* Ex Officio, Social Media Editor 포함, Technical Editor, Editorial Secretary 제외
 LJ와 SLJ는 홈페이지에는 소속 또는 국가 기재x, SNS 등에서 검색

3. 인용분석

가. 피인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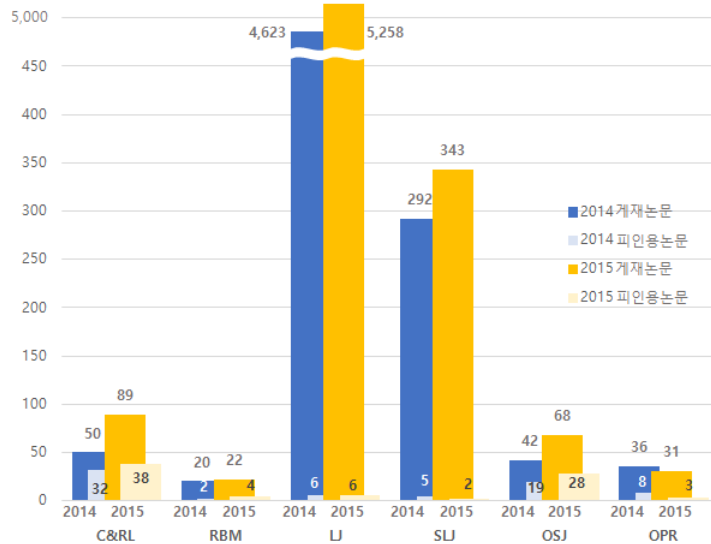
2014년과 2015년에 게재된 논문들의 피인용 현황을 피인용 논문수와 비율로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WoS와 Scopus에 동시에 등재된 학술지에서 피인용 논문수와 비율이 더 높았으나, 리뷰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은(<표 5> 참조) LJ와 SLJ의 경우는 피인용 논문수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리뷰논문을 인용하는 것이 다른 학술논문을 인용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인용 논문의 비율에서 C&RL는 게재논문의 50.3%, OSJ는 게재논문의 42.7%가 피인용 되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술지별 피인용 논문수는 <표 9>와 같으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표 9> 학술지별 논문 피인용 현황

인용수 학술지명	연도	권	게재 논문수	2016년		총피인용수
				피인용 논문		
				수	비율	
C&RL	2014	75	50	32	64.0	73
	2015	76	89	38	42.7	80
	합계		139	70	50.3	153
RBM	2014	15	20	2	10.0	2
	2015	16	22	4	18.1	6
	합계		42	6	14.3	8
LJ	2014	139	4,623	6	0.1	6
	2015	140	5,258	6	0.1	7
	합계		9,881	12	0.1	13
SLJ	2014	60	292	5	1.7	9
	2015	61	343	2	0.6	3
	합계		635	7	1.1	12
OSJ	2014	49	42	19	45.2	31
	2015	50	68	28	41.2	41
	합계		110	47	42.7	72
OPR	2014	36	36	8	22.2	8
	2015	37	31	3	9.7	3
	합계		67	11	16.4	11

나. 피인용논문 저자의 국가별 분포

2014년과 2015년에 게재된 논문 중 피인용논문의 저자 역시 학술지 발행기관의 저자들이 모든 학술지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다. 게재논문 저자의 국가별 분포(<표 6>)에서도 자국 저자가 가장 많았으며, 인용논문의 저자도 자국저자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피인용저



<그림 1> 학술지별 논문 피인용 현황

자의 국가별 다양성을 살펴보면, WoS 등재지가 비등재지인 자매지 보다 저자의 국가적 다양성이 더 높았다. 피인용논문의 저자의 국가별 분포는 <표 10>과 같다.

<표 10> 피인용논문 저자의 소속기관 국가 현황

학술지명	국가명	발행연도 구분		2014		2015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C&RL	USA	63	90.0	69	86.3	132	88.0		
	Canada	5	7.1	10	12.5	15	10.0		
	기타(2개국)	2	2.9	1	1.3	3	2.0		
	합계	70	100.0	80	100.0	150	100.0		
RBM	USA	5	100.0	6	100.0	11	100.0		
	합계	5	100.0	6	100.0	11	100.0		
LJ	USA	4	57.1	4	66.7	8	61.5		
	기타(미상)	3	42.9	2	33.3	5	38.5		
	합계	7	100.0	6	100.0	13	100.0		
SLJ	USA	4	80.0	2	100.0	6	85.7		
	기타(미상)	1	20.0	-	-	1	14.3		
	합계	5	100.0	2	100.0	7	100.0		
OSJ	Korea	67	91.8	74	53.6	141	66.8		
	Malaysia	-	-	12	8.7	12	5.7		
	Japan	-	-	10	7.2	10	4.7		
	기타(13개국)	6	8.2	42	30.3	48	18.4		
	합계	73	100.0	138	100.0	211	100.0		
OPR	Korea	23	95.8	11	100.0	34	97.1		
	Russia	1	4.2	-	-	1	2.9		
	합계	24	100.0	11	100.0	3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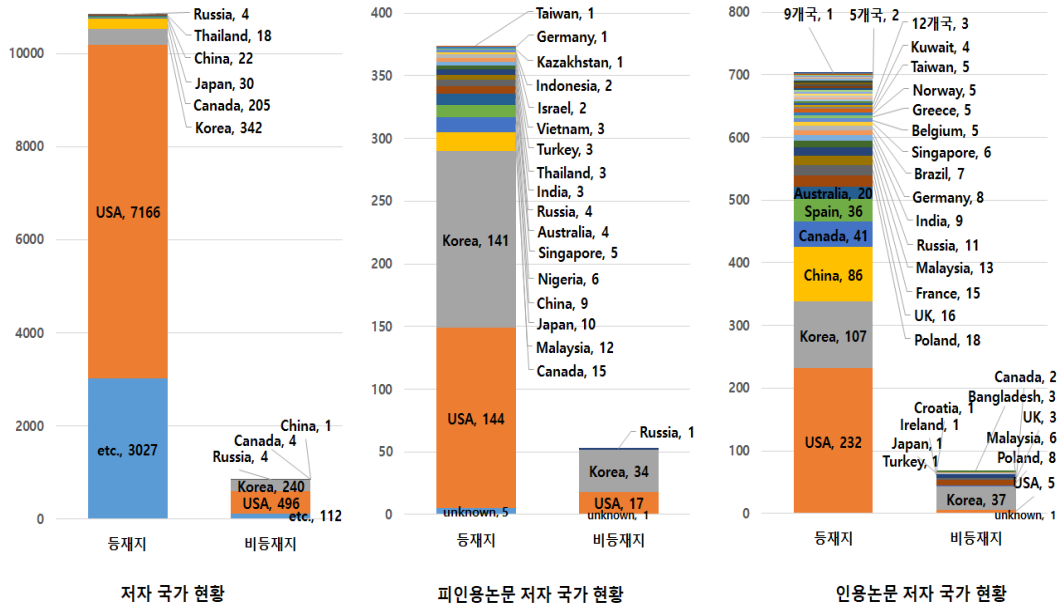
다. 인용논문 저자의 국가별 분포

2014년과 2015년에 게재된 논문을 2016년에 인용한 논문의 저자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술지에서 그 학술지 발행기관이 속한 국가의 저자들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WoS 등 제지의 논문을 인용한 저자의 국가적 다양성은 비등제지인 자매지의 논문을 인용한 저자의 국가적 다양성보다 더 높았다. 이 중에서도 특히 OSJ의 경우, 그 학술지 발행기관이 속한 국가의 저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다른 학술지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33개국의 저자들이 인용하여 가장 다양한 국가의 저자들이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지별 인용논문 저자의 국가별 분포는 <표 11>과 같다.

<표 11> 인용논문 저자의 소속기관 국가 현황(2016)

	국가명	빈도	비율	누적비율
C&RL	USA	190	57.1	57.1
	Canada	31	9.3	66.4
	Spain	26	7.8	74.2
	기타(31개국)	86	25.8	100.0
	합계	333	100.0	
RBM	USA	5	55.6	55.6
	기타(2개국+미상)	4	44.4	100.0
	합계	9	100.0	
LJ	USA	19	67.9	67.9
	기타(3개국)	9	32.2	100.0
	합계	28	100.0	
SLJ	USA	8	50.0	50.0
	Bangladesh	3	18.8	68.8
	기타(4개국)	5	31.4	100.0
	합계	16	100.0	
OSJ	South Korea	107	31.2	31.2
	China	82	23.9	55.1
	USA	23	6.7	61.8
	기타(30개국)	131	38.6	100.0
	합계	343	100.0	
OPR	South Korea	36	81.8	81.8
	Russian Federation	6	13.6	95.5
	기타(2개국)	2	4.6	100.0
	합계	44	100.0	

특히 저자의 국가적 다양성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게재논문 저자 및 피인용저자의 국가적 다양성 보다 인용저자의 국가적 다양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WoS 등재지 및 비등재지의 저자들의 국가적 다양성 확대 양상

라. 인용자료 유형

2014년과 2015년에 게재된 논문을 2016년에 인용한 자료는 모든 학술지에서 논문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BM 제외)으며, 특히 WoS 등재지의 논문이 인용되는 비율이 비등재지 보다 높았다(RBM의 경우 단행본 도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 학술지별 인용자료의 유형은 <표 12>와 같다.

<표 12> 인용자료 유형(2016)

학술지	구분 유형	전체		피인용논문의 발행연도별 인용자료 유형					
		빈도	비율	2014			2015		
				빈도	비율	전체 대비%	빈도	비율	전체 대비%
C&RL	Article	138	92.0	68	94.4	45.3	70	89.7	46.7
	기타	12	8	4	5.6	2.7	8	10.3	5.3
	합계	150 ^a	100.0	72	100.0	48.0	78	100.0	52.0
RBM	Book	3	37.5	-	-	-	3	50.0	37.5
	기타	5	62.5	2	100	25	3	50.1	37.5
	합계	8	100.0	2	100.0	25.0	6	100.0	75.0
LJ	Article	12	92.3	6	100.0	46.2	6	85.7	46.2
	Book Review	1	7.7	-	-	-	1	14.3	7.7
	합계	13	100.0	6	100.0	46.2	7	100.0	53.8

SLJ	Article	7	58.3	5	55.6	41.7	1	50.0	8.3
	기타	5	41.6	4	44.4	33.3	1	50.0	8.3
	합계	12	100.0	9	100.0	75.0	2	100	16.7
OSJ	Article	62	87.3	24	80.0	33.8	38	92.7	53.5
	기타	9	12.7	6	20	8.4	3	7.3	4.2
	합계	71**	100.0	30	100.0	42.3	41	100.0	57.7
OPR	Article	8	72.7	7	87.5	63.6	1	33.3	9.1
	기타	3	27.3	1	12.5	9.1	2	66.6	18.2
	합계	11	100.0	8	100.0	72.7	3	100.0	23.7

* 2016년 인용논문 수(153)에서 시스템 상의 이유로 미확인 자료 3건 제외

** 2016년 인용논문 수(72)에서 시스템 상의 이유로 미확인 자료 1건 제외

마. 인용논문의 WoS 등재 여부

2014년과 2015년에 게재된 논문을 2016년에 인용한 논문들이 수록된 학술지의 WoS 등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논문은 등재지의 논문이었다(RBM의 경우 단행본 도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 OSJ의 경우 69편(97.2%)의 논문이 WoS에 등재된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이었다. 학술지별 2014년 및 2015년 게재논문을 2016년에 인용한 논문이 수록된 학술지의 WoS 등재 현황은 <표 13>과 같다.

<표 13> 학술지별 인용논문 수록학술지의 WoS 등재 현황

학술지명	2016년 인용논문 수	대상논문 수*	WoS 등재 DB						전체	
			SCI	SCIE	SSCI	기타	빈도	%		
									C&RL	150**
RBM	8	-	-	-	-	-	-	-	-	
LJ	13	13	-	3	3	-	6	46.1		
SLJ	12	8	-	-	2	2	4	50.0		
OSJ	71***	71	-	69	-	-	69	97.2		
OPR	11	10	-	6	-	-	6	60.0		

* 2016년 인용논문 수에서 단행본, 학위논문, 미확인자료 제외

** 2016년 인용논문 수(153)에서 시스템 상의 이유로 미확인 자료 3건 제외

*** 2016년 인용논문 수(72)에서 시스템 상의 이유로 미확인 자료 1건 제외

바. 저자 수에 따른 논문 수와 피인용 수

각 학술지의 2014년 및 2015년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수에 따라 피인용논문 및 피인용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우선 등재지가 공동연구의 논문을 게재하는 비율이 자매지보다 더 높았다. C&RL과 RBM을 보면, C&RL의 공동연구 논문게재 비율은 47.5%, RBM

의 공동연구 논문의 게재 비율은 19.1%였다. 이러한 양상은 *LJ*(22.2%)와 *SLJ*(12.2%), *OSJ*(95.4%)와 *OPR*(89.6%)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피인용을 살펴보면, *LJ*와 *SLJ*를 제외한 나머지 학술지에서 등재학술지의 공동연구논문의 피인용율이 비등재 자매지의 피인용율보다 높지만(*C&RL*-80.3% vs. *RBM*-62.5%, *OSJ*-57.1% vs. *OPR* 26.7%) 단독연구의 피인용율 또한 등재학술지가 비등재 자매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특성은 등재학술지에서 단독연구와 공동연구의 피인용율의 차이라기 보다는 등재학술지와 비등재학술지의 인용율의 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14〉 저자수에 따른 논문 수와 피인용 수

	저자 수	게재 논문		피인용 논문		2016 피인용수	게재논문의 평균피인용수	피인용논문의 평균인용수
		수	공동연구/ 게재논문(%)	수	피인용논문/ 게재논문(%)			
C&RL	1인	73	52.5	28	38.4	53	0.72	1.89
	2인 이상	66	47.5	53	80.3	100	1.51	1.88
	합계	139	100.0	81	58.3	153	1.10	1.89
RBM	1인	34	80.9	6	17.6	3	0.09	0.50
	2인 이상*	8	19.1	5	62.5	5	0.63	1.00
	합계	42	100.0	11	26.2	8	0.19	0.73
LJ	1인	9,502	97.8	25	0.3	12	0.001	0.48
	2인 이상	216	22.2	2	0.9	1	0.005	0.50
	합계	9,718	100.0	27	0.3	13	0.001	0.48
SLJ	1인	394	87.8	14	3.6	12	0.03	0.86
	2인 이상	55	12.2	1	1.8	0	0.00	0.00
	합계	449	100.0	15	3.4	12	0.03	0.80
OSJ	1인	5	4.6	3	60.0	6	1.20	2.00
	2인 이상	105	95.4	60	57.1	66	0.63	1.10
	합계	110	100.0	63	57.3	72	0.64	1.14
OPR	1인	7	10.4	2	28.6	1	0.14	0.50
	2인 이상	60	89.6	16	26.7	10	0.17	0.63
	합계	67	100.0	18	26.9	11	0.16	0.61

* 미상 1건 포함

IV. 결론 및 제언

자매지는 동일한 발행기관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로, 이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2015년 WoS와 Scopus에 동시에 등재된 학술지와 그 자매지를 대상으로 학술지의 특성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내용은 학술지 홈페이지 및 WoS와 Scopus, Google을 활용하여 조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술지의 발간상황 및 인용 등에 대한 단편적인 분석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자매지의 상황을 비교·분석하여 국제학술지의 발간과 관련한 또 하나의 현상을 분석한 것으로, 국내의 국제 학술지의 발간과 관련하여 등재지와 비등재 자매지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대상 학술지들의 WoS와 Scopus 등재를 위한 학술지 심사 요소에 대해 학술지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 가능한 요소들을 조사한 결과, WoS나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들은 대부분 요건에 부합하였으나 *LJ*와 *SLJ*의 경우 학술지의 성격이 기관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학술지가 갖추어야 하는 동료심사나 참고문헌 등에 대한 요건에서는 다른 학술지에 비해서 특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WoS의 등재학술지들은 비등재 학술지인 자매지에 비해 발행빈도와 호당 논문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논문의 유형보다는 발행빈도와 호당 게재논문수가 WoS의 등재를 위해서 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WoS 등재지는 비등재 자매지보다 더 다양한 국가의 저자들이 논문을 게재하며, 더 다양한 국가의 저자들로부터 인용되었다. 그리고 게재 논문 저자 및 피인용 저자의 국가적 다양성 보다 인용저자의 국가적 다양성이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논문투고자는 물론 논문의 인용저자의 다양성이 WoS 등재를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게재된 논문들의 피인용 현황을 살펴보면, WoS에 등재된 학술지의 피인용논문 비율이 비등재 자매지 보다 더 높았다. 피인용수는 영향력이라 할 수 있는데, 등재지에 실린 논문의 피인용 비율이 높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유통이 되고 있으며 저자들이 자신의 논문에 인용할 정도로 논문의 품질이 좀 더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하는 논문은 등재지의 논문이었다. 이 분석 결과는 국제적인 색인에 등재되는 학술지의 특징으로 등재지의 논문을 인용하는 논문들 역시 등재지에 게재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즉 등재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논문의 영향력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연구와 단독연구를 비교해 볼 때, 등재학술지가 공동연구의 논문을 게재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인문사회분야의 연구에서 주로 단독연구의 비율이 더 높으나 (Yang & Lee 2012), 등재학술지에서 공동연구의 논문수가 많다는 사실은 국내 발간 국제학술지의 국제색인지 등재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요소일 것이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WoS의 등재지의 특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간행을 더 자주 발행하며, 학술논문위주로 발행하고, 다양한 국가의 저자에게 투고 받으며, 게재논문들의 피

인용율이 더 높으며, 인용자료의 유형 중에서 논문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며, 등재지의 논문을 인용하는 논문들은 다시 등재지에 게재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가 WoS 등재를 목표로 하는 국내발간 학술지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WoS 등재를 위해서는 더 자주 더 많은 학술논문을 발간하며, 다양한 국가의 저자들로부터 투고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투고논문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과 게재논문의 인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국내 인문사회 분야에서 비전형적인 공동연구 논문의 게재를 장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수. 2009. 해외 IMC 연구의 동향과 향후 과제: 해외 광고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 분석. 『홍보학연구』, 13(2): 167-208.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인용 2018. 8. 11].
- 김대영. 2014. 평판 분야의 국내 연구에 대한 내용분석: 국내 학술지의 연구대상 및 방법론을 중심으로(1997-2013년). 『대한경영학회지』, 27(11): 1903-1921.
- 김유경, 방정숙. 2017. 초등수학교육 연구동향: 최근 7년간 게재된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초등수학교육』, 20(1): 19-36.
- 문주영. 2014. 비서학내 연구자 네트워크 분석. 『비서학논총』, 23(2): 133-152.
- 박종석. 2014. 종교학분야 학술지 분석에 따른 연구경향과 과제: 대학부설 연구소 발간 학술지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22: 103-134.
- 변경화 외. 2014. 도시건축관련 전문학술지에 나타난 관광관련 연구문헌의 동향과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6(1): 149-158.
- 송하나. 2016. 아동학회지: 국제화와 질적 개선을 위한 움직임. 『아동학회지』, 37(1):3-6.
- 신은자, 최희운, 서태설. 2015. 해외 영향력 확산을 위한 국내학술지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 KoreaScience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4): 159-177.
- 윤석경. 2007. 인용분석에 의한 행정학분야 학술지의 특성. 『한국공공관리학보』, 21(3): 113-139.
- 이건남, 김영은. 2012. 학술지 실과교육연구의 특성 분석. 『실과교육연구』, 18(4): 1-21.
- 이건남, 이종범. 2012. 한국실과교육학회지의 인용 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5(1): 1-19.
- 이성용, 김진호. 2017.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지적장애연구' 학술지의 최근 연구 동향 분석. 『지적장애연구』, 19(1): 1-19.
- 이승주, 김도우. 2016. 국내 경찰학 관련 학술지 인용지수 비교와 상호인용 빈도를 이용한 네트워크

- 크 분석. 『한국 공안행정학회보』, 25(2): 156-178.
- 이승철. 2013. 한국 경찰학 학술연구의 특성: KCI 등재논문인 한국공안행정학회보·한국경찰학회보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7(4): 247-267.
- 이승훈. 2016. 카셰어링(Car-sharing) 연구 동향: 국내 학위 논문과 주요 학술지를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62: 3-17.
- 이에다나 외. 2016. 국내 학술지에 나타난 읽기에 관한 연구동향: 다문화 학생을 중심으로. 『학습장애연구』, 13(2): 123-155.
- 이춘실. 1997. 한국의학논문이 게재된 SCI 학술지의 특성 및 국내 의학도서관 소장상황 분석 연구.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지』, 24(2): 73-83.
- 이춘실. 1999. 국제 색인·초록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한국학술지의 특성연구: 1990년-1997년. 『정보관리학회지』, 16(3): 7-30.
- 이혜경, 양기덕. 2017. 국내대학의 학술논문 연구업적평가기준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2): 295-322.
- 鑛曦攄. 2014. *How to get published in Nature (and its sister journals)*.
<<http://ord.ntu.edu.tw/tc/includes/GetFile.ashx?mID=253&id=1744&chk=e15262f3-87bf-4a7e-be6a-4103cbc61968>> [cited 2018. 8. 12].
- 장승희, 김영연. 2017. 「음악교육연구」 학술지에 보고된 유아음악교육 연구동향 분석: 1988년~2016년 논문을 중심으로. 『음악교육연구』, 46(2): 103-130.
- 전미영. 2006. 북한의 철학연구 동향 및 특성: 학술지 분석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23: 199-241.
- 전희주. 2015. 소셜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통계학회 논문집과 응용통계연구 공저자 네트워크 비교.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6(2): 335-346.
- 차성기. 2007. 학술지를 통해 본 해양스포츠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체육학회지』, 46(1): 557-565.
- 하선희, 서현아. 2013. 정서지능 관련 학술지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2013.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2): 461-485.
- 한종엽, 권성국. 2008. 해양과학기술분야 전문학술지의 계량정보학적 인용분석 예비연구. 『제15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29-234.
- Chadegani, Aghaei et al. 2013. "A comparison between two main academic literature collections: Web of Science and Scopus databases." *Asian Social Science*, 9(5): 18-26.
- Clarivate Analytics Home Page. *Evaluation criteria for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journals*. <<https://clarivate.com/essays/evaluation-criteria-web-science-core-collection-journals>> [cited 2018. 8. 12].

- Elsevier Home Page. *Content Policy and Selection*. <<https://www.elsevier.com/solutions/scopus/content/content-policy-and-selection>> [cited 2018. 8. 12].
- Library Journal Home Page. *About Us*. <<https://www.libraryjournal.com/?page=About-Us>> [cited 2018. 8. 11].
- Nature Communications Home Page. *About the journal*. <<https://www.nature.com/ncomms/about>> [cited 2018. 8. 12].
- School Library Journal Home Page. *About Us*. <<https://www.slj.com/?page=About-Us>> [cited 2018. 8. 11].
- Yang, Kiduk and Jongwook Lee. 2012. "Analysis of publication patterns in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Scientometrics*, 93(2): 233-251.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yun, Kyeong-Hwa et al. 2014. "Characteristics on Literatures of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related to Tourism."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6(1): 149-158.
- Cha, Seong-Ki. 2007. "Research trends and subjects of marine sports from point of view of scientific journal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6(1): 557-565.
- Chun, Heuiju. 2015. "The comparison of coauthor networks of two statistical journals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6(2): 335-346.
- Gerstner, Ed. 2014. "How to get published in Nature (and its sister journals)." <<http://ord.ntu.edu.tw/tc/includes/GetFile.ashx?mID=253&id=1744&chk=e15262f3-87bf-4a7e-be6a-4103cbc61968>> [cited 2018. 8. 12].
- Ha, Sun Hae and Hyun Ah Seo. 2013. "An Analysis Study on Research Trends of Emotional Intelligence for Young Children."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14(2): 461-485.
- Han, Jong-Yup and Seong-Kook Kwon. 2008. "Preliminary Study on Bibliometric Citation Analysis of the Oceanographic Journals." *15th.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229-234.
- Jang, Seung Hee and Young-youn Kim. 2017.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Early

- Childhood Music Education Reported from 1988 through 2016 in the Journal of Korean Music Education Research Published by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6(2): 103–130.
- Joen, Mi–Yeong. 2006. “North Korean Philosophy: An Analysis of the Tendencies of Research.” *A journal of philosophical ideas*, 23: 199–241.
- Kang, Kyong soo. 2009. “The State and Trend of IMC Research in Four Premier Advertising Journals : from 1993 to 2008.” *Journal of Public Relations*, 13(2): 167–208.
- Kim, Dae–Young. 2014. “Research on reputation studies: research findings and future prioritie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7(11): 1903–1921.
- Kim, Yukyung and Jeongsuk Pang. 2017. “Research Trends in Elementary Mathematics Education: Focused on the Papers Published in Domestic Journals During the Resent Seven Years.” *Education of Primary School Mathematics*, 20(1): 19–36.
- Lee, Gun–Nam and Jong–Bum Lee. 2012. “A Citation Analysi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ractical Art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5(1): 1–19.
- Lee, Gun–Nam and Young–Eun Kim. 2012. “Characteristics of the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by citation analysi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8(4): 1–21.
- Lee, Hyekyung and Kiduk Yang. 2017.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universities’ journal publication research performance evaluation standard.”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2): 295–322
- Lee, Seung Joo and Do Woo Kim. 2016. “Network Analysis using Frequency of Cross–citation and Comparing Citation Index of Police Science Journals.”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25(2): 156–178.
- Lee, Seung–Chal. 2013. “A Traits for the Academic Research of Police Science in Korea: Centering on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Criminal Justice and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of thesis Contributed on KCI.”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and administration studies*, 27(4): 247–267.
- Lee, Seunghoon. 2016. “A Review of Car–sharing Research : With a Focus on Domestic Thesis and Research Papers.” *Journal of Geography*, 62: 3–17.

- Lee, Yedana et al. 2016. "Analysis of Reading Research Trends in Korean Academic Journals: Focus on the Multicultural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13(2): 123-155.
- Lee, Choon-Shil. 1997. "An Analysis of SCI Source Journals Where Korean Medical Papers Are Published."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24(2): 73-83.
- Lee, Choon-Shil. 1999.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Journals Covered by International Abstract and Index Databases: 1990-1997."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6(3): 7-30.
- Moon, Ju Young. 2014. "A Study on Research Network of Secretarial Studies Using Network Analysis." *Journal of Secretarial Sciences*, 23(2): 133-152.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Standard Korean Dictionary."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cited 2018. 8. 11].
- Park, Jong Soo. 2014. "Research Trend of Religious Studies and Their Tasks: Focusing on Journals published by University Institutes." *Journal of Religion and Culture*, 22: 103-134.
- Shin, Eun-Ja, Hee-yoon Choi and Tae-Sul Seo. 2015. "Internationalization of Domestic Journals for Enhancing the Global Influence: An Analysis on KoreaScience Journals."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4): 159-177.
- Song, Hana. 2016.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Moving Towards Internationalization and Improvement in Qualit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7(1): 3-6.
- Yi, Seongyong Y. and Jinho H. Kim. 2017. "A Study on Research Trends of the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using the Keyword Network Analysi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19(1): 1-19.
- Yoon, Suk-Kyeong. 2007. "Characteristics of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s by citation analysis."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21(3): 113-139.